



# 보도자료

담당자 천지연 연구위원(3775-9018)

보도 2025. 2. 21(금) 조간부터  
(온라인 2025. 2. 20(목) 12:00부터)

홍보담당 변철성 수석역(3775-9115)

매수 총 3매

## 보험연구원, 『글로벌 재보험시장 이슈와 전망』 CEO Report 발간

“하드마켓과 소프트마켓 요인이 혼재된 전환 국면 속 성장 지속 전망,  
보험산업 리스크 확대 요인 및 영향에 주목해야 함”

- 보험연구원 천지연·한진현·권순일 연구위원은 2025년 글로벌 재보험시장의 이슈를 분석하고 영향에 따른 향후 시장을 전망한 『글로벌 재보험시장 이슈와 전망』 보고서를 발표함
- (글로벌 재보험시장 현황) 글로벌 재보험시장은 최근 5년간(2018~2023년) 연평균 7%로 성장하는 등 성장세를 지속하였으나, 일부 리스크 요인이 존재함
  - 재보험사들의 신규 위험 인수 확대 및 포트폴리오 다변화 노력에 따라 재보험시장은 원보험시장 대비 비교적 크게 성장하였고, 효율인상과 인수조건 강화로 합산비율\*이 안정화되는 등 시장 상황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임

\* 재보험산업 합산비율: 2017년 110.3% → 2021년 96.4% → 2023년 91.5%

〈표 1〉 원보험 및 재보험 시장 규모

구분	2018	2019	2020	2021	2022	2023	(단위: 백만 달러) 연평균 성장률
원보험료	6,149,020	6,292,600	6,291,834	6,860,598	6,772,753	7,186,174	3.2%
재보험료 <sup>1)</sup>	268,060	311,588	347,699	385,696	363,477	378,543	7.1%
출재비율 <sup>2)</sup>	4.4%	5.0%	5.5%	5.6%	5.4%	5.3%	-

주: 1) 유럽, 미국, 아시아, 아프리카, 중동 등 세계 143개 재보험사 실적 기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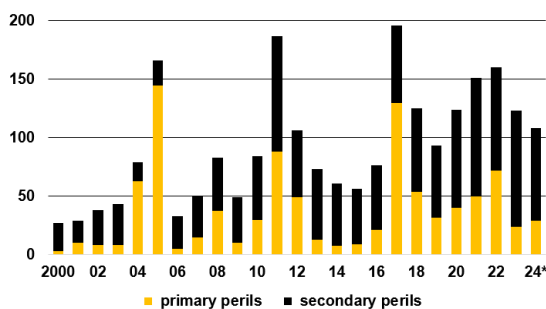
2) 글로벌 원보험료 규모 대비 재보험료(143개사) 비율로 계산한 추정치임

자료: Atlas Magazine(2025)

- 다만, 글로벌 경제·사회 환경의 변화, 자연재해 발생 가능성 증가, AI의 확산 등과 관련된 리스크 요인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음
- (경제·사회 환경 변화) 고령화 및 중산층 증가에 따라 아시아를 중심으로 건강보험, 연금 및 저축성 보험 등의 수요 증가가 예상되며, 도시화 증가 및 클레임 인플레이션 상승은 재보험사 손실 증가의 원인으로 작용될 수 있음
  - 특히, 도시화 집중은 재해, 폭동 발생 시 자산가치의 변동성을 확대하며, 기술집약적 장치의 확산에 따라 청구비용이 상승될 가능성이 있음
- (기후변화와 자연재해 증가) 자연재해 피해 증가에 따라 보장 격차가 확대되고, 자연재해 발생 양상 또한 변화하고 있어, 보장 격차 축소 및 위험 측정 방안 모색과 함께 위험이 큰 지역을 중심으로 공적 영역과 협업이 필요해짐
  - Primary perils(규모가 크고 빈도가 적은 재해)보다 Secondary perils(규모가 작고 빈도가 잦은 재해)로 인한 피해가 더 크게 작용하여 자연재해 발생 예측 모델링 기법을 수정·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됨

〈그림 1〉 전 세계 자연재해로 인한 보험 손실액

(단위: 십억 달러)



주: 2024년은 1~9월 기준이며, 금액은 2023년 환산 기준임  
 자료: Gallagher Re(2024a; 2024b)

〈표 2〉 주요 산불사고의 보험손실액(1900~2025년)

(단위: 십억 달러)

산불	연도	보험 손실
LA(Palisesades) Fire(미국)	2025	75 <sup>E</sup>
Camp Fire(미국)	2018	12.2
Tubbs Fire(미국)	2017	10.9
Woolsey Fire(미국)	2018	5.1
Oakland (Tunnel) Fire(미국)	1991	3.8
Atlas Fire(미국)	2017	3.7
Horse Creek Fire(캐나다)	2016	3.7
Maui/Hawaii Fire(미국)	2023	3.5

주: 보험손실액은 2023년 기준 환산금액임  
 자료: Aon(2024a), UCLA(2025)

- (디지털·AI 도입 확산) 데이터를 활용한 AI의 응용 범위가 다양한 산업으로 점차 확대되면서 사이버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, 개인정보 침해, 랜섬웨어, 기타 사이버 리스크에 대한 수요를 중심으로 사이버보험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보임
  - 전 세계 사이버보험 시장 규모는 2019년 59억 달러에서 2023년 141억 달러로 두 배

이상 상승하였고, 2027년까지 290억 달러로 그 규모가 다시 두 배 이상 크게 확대 될 것으로 보이며, 사이버 위협 인식 제고 등으로 북아메리카, 유럽, 아시아를 중심으로 사이버 보험시장이 고르게 성장할 것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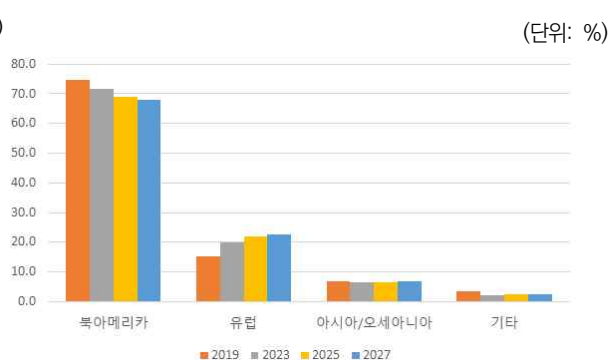
\* 참고로 국내 사이버보험 시장 규모는 2019년 76억 원에서 2023년 326억 원으로 크게 확대되었으나, 이는 전 세계 사이버보험 시장 규모(141억 달러)의 약 0.2% 수준에 불과한 수준임

〈그림 2〉 전 세계 사이버보험 시장 전망



자료: Zurich and Marsh(SIRC 2024(2024) 재인용)

〈그림 3〉 글로벌 지역별 사이버보험 시장 비중



자료: Zurich and Marsh(SIRC 2024(2024) 재인용)

○ 2025년 재보험시장은 하드마켓과 소프트마켓\* 요인이 혼재하는 전환 국면에 있을 것으로 보이며, 재보험 수요 증가에 따른 거래량 증가로 전반적인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

\* 하드마켓(Hard Market)에서는 주로 재보험료 상승, 보장조건 강화, 재보험 공급 부족이 나타나며, 소프트마켓(Soft Market)에서는 재보험료 하락, 인수기준 완화, 재보험 공급 증가 등이 나타남

- 주요 재보험사들의 합산비율 관리 강화, 클레임 인플레이션, 자연재해 손실 증가 등은 하드마켓 지속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
- 자본확충, 거래량 증가, 공급 확대 등으로 2024년을 정점으로 상당 기간 지속된 하드마켓에서 소프트마켓으로 점진적인 재보험시장의 사이클 변화 가능성도 혼재함
- 전반적인 시장의 성장세를 유지하면서, 시장 환경에 따른 종목별, 지역별 차별화 양상이 보일 것으로 예상됨

첨부: CEO Report 『글로벌 재보험시장 이슈와 전망』

-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(<http://www.kiri.or.kr>)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